

아버지 제 손맛 어때요?

최기형 교감선생님

아버지 제 손맛 어때요?

민수 녀석이

불다귀가 벌거서 등고했다.

“아버지가 또 때렸나?”

“손맛이 땀나?”

녀석은 대꾸를 하지 않는다.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라.”

녀석에게 만 원은 건넨다.

한사코 받지 않는다.

“나중에 이자 쳐서 갈아라.

김치찌개 끓여서 아버지 술 한 잔 따라 드려라.

아버지, 제 손맛 어때요?”

라고 꼭 여쭙봐라.

<아버지 제 손맛 어때요?>라는 제목의 이 시는 현재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장인수 시인이 교육현장의 중심에서 생동감 있는 언어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고 여름방학을 앞둔, 모처럼 느긋한 토요일 아침에 모 일간지 '시가 있는 아침' 코너에 오민석 시인께서 감상을 곁들여 소개한 이 시를 읽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같은 교사이기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며 직업의식이 발동해서 이 시를 지문으로 만든 문제입니다.

1. 시적 화자와 민수의 관계는?
2. 아버지는 무슨 일로 민수를 때렸을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서술하시오.
3.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라'라고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4. 2연과 4연에 쓰인 '손맛'의 사전적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5. 4연에서 '제 손맛 어때요?'라고 꼭 여쭙봐라. 라고 말하는 화자의 의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6. 이 시의 주제는?
7. 2연에서 "아버지가 또 때렸나"라는 말을 통해 시적 화자는 민수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교사는 신고의무자인데, 시적 화자의 입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다음은 민수가 끌어준 김치찌개에 술 한 잔 하신 아버지가
시적 화자에 쓴 편지를 상상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면목 없고 감사합니다.

민수가 중학교 다닐 때만해도 사임도 잘되었고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임이 망해서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하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고 그나마 민수를 SKY 보내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처럼 친구들과 한

잔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더니 이 녀석이 게임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데, 술김에 화가 나서 또

밤을 때렸습니다.

주남을 보니 시힘 끝나고 일찍 와서 저녁이라고

혼자서 라면 끓여먹었는데...

그는 민수가 김치찌개 끌어 놓고 술 한 잔 따라 주면

서 "아버지, 제 손맛 어때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밤새 울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못난 애비의 그릇된 자식사랑이 폭력적으로 변했는데, 선

생님께서는 민수로 하여금 애비에게 몇 배의 효도로

갚도록 교육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욕심보다는 민수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진로지도를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민수에게 베풀어주시 큰 사랑을 깨달았습

니다. 선생님은 참 스승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기말고사를 마치고 1박2일 무장포로 학생회 임원 수련회
를 다녀왔습니다. '학생회 임원들의 권목과 단합을 도모하며,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교육 발
전을 도모한다.'라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인데, 토론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학생부장 : 지금까지 축제, 급식, 우산 대여, 창체활동, 수행
평가 등 여러 가지 학교생활 문제에 대해 학생들
의 의견을 수렴했고 건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했
습니다. 이 외에 다른 건의사항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말해보세요.

동구 : 요즘에 '스승과 제자는 일고 교사와 학생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과 중에는 교무실에 계신 담임선생
님과 거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바쁘신 것 이해하
지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좀 더 친근하게 대해주
시고 학생들과 소통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의 매'조차 '폭력'이 되어버린 뒤 학생생활지도가 어
렵고, 전반적인 학력저하, 특히 수능 비선택과목인 경우 교실
수업이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임선생님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인한 학교생활기록부 스트레스 심합니다. 그
래도 조회시간에 '민수 녀석 볼때기가 별건지?' 유심히 보시
고 상담실로 불러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라.'라고 다독
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교직에서 정년퇴임을 하는 분들이 '껌껌껌'하신다는 말
이 있습니다. 삼십년 직장생활을 회고하면서 '배플 걸, 즐
길 걸, 참을 걸'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삶이나
동료관계에 관한 것이지만, 저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껌
껌껌'할 듯합니다.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 때리지 말고 말로
타이를 걸,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 걸, 공부 못한다고 구박하
지 말 걸, 점수보다는 적성에 맞는 진학지도가 되도록 해줄
걸, 꿈을 찾도록 용기를 줄 걸... 이처럼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 남은 동안이나마 후회를 덜하도록 이번 방학
에는 학생들과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